

노인무용 교육효과의 치유작용 메커니즘

Healing Action Mechanism of Senior Dance's Educational Effect

유지영

한국체육대학교 생활무용학과

Ji-Young Yoo(jy7045@naver.com)

요약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경험적 인식을 현상학적으로 접근하여 노인무용의 교육효과와 이에 따른 치유 작용 메커니즘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는 2014년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회복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서 무용분야 수혜기관으로 선정된 노인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 7명이다. 연구의 자료는 1:1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복지사들은 노인무용교육을 단순한 신체활동 보다는 정서, 인지, 정신, 사회적 예술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노인들은 무용활동으로 인해 개인의 긍정적 정서와 인지력을 자극하여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피드백 하고 있었다.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에서 삶의 만족감이 점점 커지게 되는 눈덩이 효과(snowball effect)가 나타났다. 따라서 복지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노인무용 교육은 개인과 공동체간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삶의 질을 점차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는 치유적 예술활동이라 할 수 있다.

■ 중심어 : | 노인무용 | 무용교육 | 신체활동 | 치유 | 메커니즘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educational effect and healing action of senior dance by approaching the experiential awareness of the social workers in phenomenological ways. The social worker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are 7 social workers at Institute of Social Welfare of the Elderly Welfare in 2014 selected from ARTE Culture and Arts Culture and Arts Education Support Project as beneficiary organizations in the field of dance education. The materials and data of this study have been collected through 1 to 1 in-dept interviews with them. As a result, social welfare workers were recognizing senior dance education as emotional, recognizable, mental, social art activities rather than simple physical activities. And the senior citizens stimulate individual positive emotions and cognitive and have given feedback on and on. So, snowball effect that satisfactory feel of our lives get increased occurs. Finally, senior dance education provided at welfare institutions can be considered healing art activity to improve quality of life gradually through continuous interaction among individuals and communities.

■ keyword : | Senior Dance | Dance Education | Art Activity | Healing | Mechanism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고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전 세대와 같이 질병과 죽음에 대하여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고, 각종 생활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1]. 또한 경제활동참가율과 사회복지 지출비 수준 등에 따라 노인자살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2]. 따라서 노인들은 주변인의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가족들에게 보호받지 못하는 일부 노인들에게는 사회적으로 체계적인 관리·지원이 요구된다[3].

대한민국에서는 2008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거주 형태를 제외한 모든 노인복지기관을 모두 무효시설로 통합하였고, 여기에서 교양·취미생활 및 참여활동, 건강증진 및 예방 등과 관련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4]. 따라서 대부분의 노인복지기관에서는 무용수업이 보편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동안 노인들에게 무용은 재미와 정서함양, 사회적 관계 및 신체적 기능 등 삶의 질과 관련하여 인간의 특정 영역 강화에 유용한 수단으로 밝혀졌다[5]. 이로 인해 무용이 치료의 수단으로까지 확장되었으며, 브라우닝어(Brauninger)는 향후 더 많은 노인들이 무용동작치료(Dance Movement Therapy: DMT)를 찾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6].

그러나 노인복지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무용교육은 취미 여가 활동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교육효과는 교육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치유(healing)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치유는 치료와는 달리 내적으로 증상의 원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심리적, 영적 차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7].

인간의 심리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심리상태에 따라 행동의 패턴도 달라지게 된다. 조용란, 이인수의 연구에서도 타 노인과의 사교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개방성이 강한 노인은 복지기관 내에서 폭넓은 사교활동을 추구하지만 타인과의 차이점을 수용하지 않고 개인적이고 폐쇄적인 성향이 강한 노인들은 그룹 내에서 중도이탈을 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8].

그런데 노인복지기관 내에서 이와 같은 클라이언트의 심리, 행동변화를 가장 먼저 탐지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이다. 즉,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조직을 연결시키는 주요 매개자라는 점을 감안 할 때 사회복지사들은 클라이언트의 심리, 행동 변화를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노인무용 교육의 효과는 대부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 클라이언트를 주제로 하여 단면적으로 연구되었다. 구체적으로 노인의 신체적·생리적 향상에 관한 연구[9-12]에서는 노인의 체력과 보행능력을 향상시키고, 당뇨 및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인자를 낮추는 등 신체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노인의 즐거움·행복감 증진에 관한 연구[13-17]에서는 무용교육 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해 정서적 행복감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적체험으로 인한 재미와 자신감 증진으로 인해 즐거움을 체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용수업 전후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에 관한 연구[18-20]에서는 무용교육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사회적 관계 요인이 줄어들었고, 무용교육 기간이 길수록 사회적 관계 만족도 수준이 신체적, 정신적 만족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무용 참가 여부가 노인의 사회적 연결망 및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보고되었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측면보다는 주로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서의 연구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무용교육의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들이 비교적 단기간 실험적 상황으로 연구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회적 측면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비했을 것이라 추측된다.

또한 각각의 연구들은 무용교육 효과가 노인의 삶의 질을 증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있지만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고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다. 즉, 기존의 연구결과만으로는 장기간 노인 무용교육과

정에서 일어나는 치유적 양상을 다각도로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심리, 행동 변화를 바탕으로 노인무용 교육의 효과를 탐색하는 것은 무용교육 과정에서 일어나는 치유적 메커니즘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경험적 인식을 현상학적으로 접근하여 노인무용 교육효과와 치유작용 메커니즘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의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노인복지기관 사회복지사가 인식하는 노인무용의 교육효과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노인무용 교육효과에 대한 치유작용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2. 연구의 제한점

설정된 연구목적과 방법에 따라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복지사 경력과 지역 차에 따라 무용교육 효과의 인지 정도가 고려하지 않아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연구의 참여자 중 무용이외에 타 예술장르의 지원사업을 겸하고 있는 이들을 일부 포함하고 있어 무용교육효과에 대하여 확대 해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연구의 참여자가 인지한 무용교육의 효과는 주관적 경험에 의해 확인된 결과이므로 실증적 연구방법을 통해 재검토 되어야 할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의 참여자

연구의 참여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서 무용분야 수혜기관으로 선정된 노인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 7명이다.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은 2014년도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실제 수행하면서 무용강사와 직접 피드백하는 이들로써 지역적 안배가 고려된 유목적표집 방법으로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개인배경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의 복지사 경력은 최소 2년에서 12년까지인 이들로 구성되어 있고, 무용분야이외에도 연극과 음악분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이들이 5명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연구 참여자의 개인 배경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개인배경

NO	경력	연령	성별	지역
1	2년	20대	M	경기
2	2년	20대	F	경남
3	3년	20대	F	Y광역시
4	12년	30대	F	경북
5	3년	30대	F	경기
6	11년	30대	F	경남
7	3년	20대	F	전남

2. 무용교육 활동 내용

다음 [표 2]는 연구 참여자가 소속된 노인복지기관 무용교육 활동의 내용이다. 무용장르는 한 가지에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복지기관 발표회, 지역행사 봉사참여, 재능기부 공연, 청춘제¹⁾ 참가 등 교육받은 무용작품을 대부분 공연에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가 진행된 시점은 2014년도의 무용교육이 6개월 이상 진행된 상태였고, 파견된 강사의 노인무용 교육경력은 모두 5년 이상 된 여성 무용전공자들로서 전문무용 교육을 받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소속 예술강사이다.

표 2. 노인복지기관 무용교육 활동 내용

NO	기관	강사 정보		무용교육 장르	활동
		경력	연령		
1	경기 H복지관	10년	45세	- 한국무용 - 라인댄스 - 창작무용	- 청춘제 참가 - 복지관발표회
2	경남 G복지관	11년	39세	- 한국무용 - 포크댄스	- 복지관발표회

1)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1회 진행되는 노인 문화예술축제.

3	Y광역시 S복지관	10년	41세	- 한국무용 - 라인댄스 - 건강춤	- 복지관발표회
4	경북 Y복지관	10년	44세	-한국무용	- 복지관발표회 - 지역 봉사공연
5	경기 Y복지관	12년	49세	-한국무용 -창작무용	- 복지관발표회
6	경남 Y복지관	15년	40세	-한국무용	- 복지관발표회 - 재능기부 공연
7	전남 B복지관	5년	35세	-라인댄스	- 복지관발표회

아래 [그림 1]은 경기지역 Y복지관 무용수업 중 청춘제에 참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가 작품을 촬영하고 있는 장면이다. 사회복지사는 무용수업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 참여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그림 1. 청춘제 참가 준비장면(2014.8.29)

3. 자료수집 절차

자료의 수집은 현상학적 연구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1:1 심층면담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면담에 앞서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였고, 면담 내용을 연구에 활용해도 좋다는 동의를 모두 구하였다.

면담은 2014년 8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약 2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면담은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1회만 실시하였고, 한 회기 당 약 20-30분이 소요되었다. 면담 일시는 연구 참여자와 조율하여 결정하였으며, 장소는 모두 노인복지관 내 상담실에서 이루어졌다.

면담의 형식은 ‘노인무용 교육(수업)의 효과는 무엇인가?’라는 구조화된 질문에 대하여 ‘무용교육 후 클라이언트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생겼나?’, ‘무용활동의 어떠한 점이 교육적 효과를 촉진시키는가?’와 같은 반구

조화된 질문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무용교육 효과에 대하여 총 3가지 하위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면담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가 구술한 내용을 즉시 전사(傳寫)하였으며, 동일한 참여자에게서 같은 내용의 답이 반복되어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진행하였다.

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특성에 따라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토대로 하였고, 연구자의 주관적인 의견과 선입관을 최대한 배제하였다. 특히 조르지(Giorgi)가 제안한 전사된 기록을 반복적으로 읽어 전체 내용 파악하기, 내용을 의미 있는 단위로 구분하기, 중복되거나 맥락에서 벗어난 부분을 제외하기, 의미단위 구조를 기초로 하여 의미의 구조 함축하기와 같은 4단계 구조[21]에 따라 분석되었다.

5.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구바(Guba)와 링클론(Lincoln)이 제안한 평가기준[22]을 적용하였다. 첫째 연구가 얼마나 현상을 정확하게 서술하고 반영하고 있는가를 밝혀야 하는 ‘사실적 가치’와 관련하여 일상적 언어로 전사한 내용을 학문적 용어로 즉시 개작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시켰다. 둘째, 연구결과가 연구상황 밖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적용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면담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새로운 내용이 더 이상 도출되지 않을 때까지 질문에 대한 답을 유도하였다. 셋째, 연구를 다시 진행해도 동일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기간의 시간차이를 두고 자료를 여러 번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선입관을 배제하여야 하는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자의 판단을 개입시키지 않고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기술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정서적 긍정경험

사회복지사들은 무용교육이 노인들의 정서적 긍정경험에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노인들은 무용교육 과정에서 성취감, 자존감, 만족감과 같은 긍정 정서를 경험하고 있고, 이것이 삶의 기쁨, 즐거움, 활력으로 이어져 적극적인 무용활동에 대하여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였다. 특히 발표회와 같은 공연활동이 이와 같은 정서적 긍정경험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무용수업은 정서적인 부분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요. 성취감, 만족감을 느낌으로서 기분이 좋아지게 되고 이것이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참여자 2)

“무용교육의 효과는 무엇보다 자존감과 성취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매우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참여자 4)

“노인분들이 춤을 추면 마음이 굉장히 젊어지고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발표회는 이 나이에도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얻게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는데, 이것이 무용활동이 갖는 특이한 효과라 생각합니다.”(참여자 5)



그림 2. 정서적 긍정경험

2. 인지·정신적 증상 완화

사회복지사들은 무용교육이 노인들의 인지력과 정신적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무용교육으로 인하여 인지·지각능력이 향상됨으로서 우울증이 극복되거나 초기 치매증상이 완화되는 경우

를 경험한 것이다. 따라서 노인들은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일상 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생김으로서 결국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무용교육의 효과는 무용이 음악과 함께하는 활동, 감성을 자극하는 활동이기 때문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무용이 감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인지, 지각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생각하구요. 실제 치매 증상이 좋아진 사례를 경험하였어요. 인지력이 좋아지니까 복지관 활동에도 자신감이 붙고 다른 분들하고도 의사소통이 되니까 이전 생활하고는 많이 달라졌다고 느꼈었죠”(참여자 6)

“음악을 들으면서 움직이는 댄스 수업을 통해 우울증을 극복해낸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초기 치매 증상으로 완화된 경우가 있었어요. 독거노인들에게 무용활동은 특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요.”(참여자 7)



그림 3. 인지·정신적 증상 완화

3. 사회성 증진

사회복지사들은 무용교육이 노인들의 사회성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무용교육을 통해 성격, 언어, 행동이 순화되었고, 이것이 유대감 형성, 협동심과 이해심 신장, 사교성 증진 등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이는 무용교육이 소그룹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기인된 것이었다. 그리고 무용교육으로 인한 사회성 증진은 복지관 활동의 적극성으로 이어져 결국 삶의 만족감 증대로 확대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평소 날카로운 성격을 가진 분들이 무용수업을 한 후 성격이 부드러워졌고, 주변 분들과 공동체적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어요. 이후에 복지기관 활동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삶에 만족감도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참여자 1)

“노인의 특성인 강한 고집과 개인적인 성격이 무용교육으로 인해 순화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였어요. 그 이유는 무용이 사 진처럼 개인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소그룹활동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참여자 2)

“무용교육은 협동심과 이해심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언어적, 행동적 순화를 이루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죠.”(참여자 3)

“무용수업을 받는 동안 서로 유대감이 돈독해지고 정이 쌓여 사회적인 인간관계가 긴밀해 지더라고요.”(참여자 4)

“그룹으로 이루어지는 무용교육은 무엇보다 사교성을 좋게 하기 때문에 독거노인의 외로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참여자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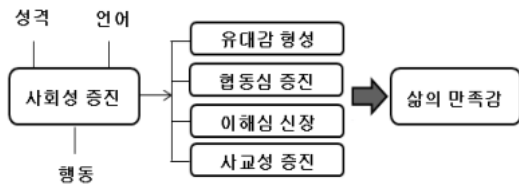


그림 4. 사회성 증진

IV. 논의 및 결론

복지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무용교육은 한국무용, 라인댄스, 발레, 창작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무용수업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들은 각 무용이 갖고 있는 춤의 특징과 그에 따른 개별적 효과들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자신이 오랫동안 관리(care)하는 노인들 곁에서 경험적으로 그들의 행동 및 상태변화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용교육과 노인의 삶의 관계를 객관적 시각에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 따라서 핵심적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몇 가지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사들은 노인무용 교육의 효과를 정서적, 인지·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관련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

다. 웬(Wen) 등의 연구결과[23]에서는 노인 요양소에서 경험하는 노인들의 창의적인 예술활동이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자존감과 성취감 및 삶의 활력소를 증진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크로스(Cross) 등은 우울증이나 초기 치매, 불안장애, 우울증 감소에 무용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24]. 특히 브리우닝어(Brauninger)는 인지·정신적 건강과 관련하여 서클 댄스(circle dance), 즉흥춤, 커플댄스, 게임댄스 등이 자주 활용되고 있다고 하였고[25], 트론버그(Thornberg) 등은 창작무용에서 몸과 마음을 연결할 수 있는 요인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26].

사회적 측면에서는 한국무용 프로그램을 통해 대인관계의 부정적 요인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27] 무용교육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긍정적 요인 수준이 증진된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무용이 신체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운동의 개념을 일부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들은 단순한 신체활동보다 정서, 인지, 정신, 사회적 예술활동으로 노인무용 교육을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노인무용 교육의 효과는 또 다른 효과로 전이되거나 확산되는 과정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무용교육으로 인한 정서적 긍정경험은 적극적인 무용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로 전이되었고, 인지·정신적 증상 완화는 대인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고 있었다. 또한 사회성 증진은 삶의 만족감으로 확산됨으로서 결국 정서적, 인지·정신적 측면의 효과를 촉진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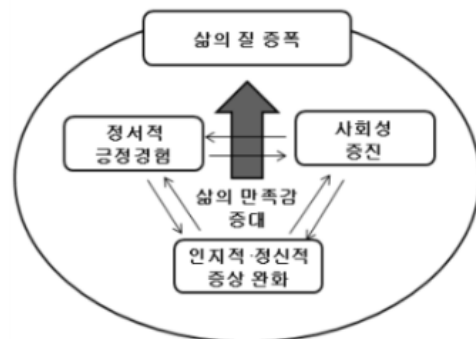


그림 5. 노인무용 교육의 치유작용 메커니즘

즉, [그림 5]와 같이 정서적 긍정경험, 인지·정서적 증상완화, 사회성 증진 요인이 서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일으켜 삶의 만족감을 증대시킴으로서 이것이 삶의 질을 증폭시킬 수 있는 기폭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와 같은 결과는 그룹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무용교육의 특이성에 기인된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오늘날 노인들의 예술활동이 감정이 이입된 인지적, 물리적 과정을 포함하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활동으로서 사회적 관계의 맥락 속에서 발생한다고 말한 리들(Liddle) 등의 연구결과[28]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무용 교육의 치유적 메커니즘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삶의 만족감을 점점 커지게 만드는 이른바 눈덩이 효과(snowball effect)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복지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노인무용 교육은 개인과 공동체간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삶의 질을 점차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는 치유적 예술활동이라 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노인무용 교육의 치유적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한 무용교육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개인의 다양성이 반영된 실용적인 연구들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1] 하경분, 송선희, “노인의 일상적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7호, pp.278-289, 2013.
- [2] 김형수, 권이경, “한국 노인자살률과 사회·경제적 요인의 관련성: 1990-2010년 변화추이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6호, pp.236-245, 2013.
- [3] R. Aldrich, “The Ageing Demographic Transition: The Impact on Elderly and Social Workers,” Aotearoa New Zealand Social Work Review, Vol.22, No.2, pp.4-12, 2010.
- [4] 김윤배, 김학재, “노인복지관 실버타운의 기관혁신히동에 관한 비교연구”, 복지상담교육연구, 제1권, 제1호, pp.1-24, 2012.
- [5] C. F. Berrol, W. L. Ooi, and S. S. Katz, “Dance/movement Therapy with Older Adults who have Sustained Neurological Insult,” A Demonstration Project, American Journal of Dance Therapy, Vol.19, No.2, pp.135-160, 1997.
- [6] I. Brauning, “Dance Movement Therapy with the Elderly: An International Internet-Based Survey Undertaken with Practitioners,” Body, Movement and Dance in Psychotherapy, Vol.9, No.3, pp.138-153, 2014.
- [7] 설기문, “자연치유로서의 최면”, 자연치유학회지, 제3권, 제1호, pp.99-107, 2014.
- [8] 조용란, 이인수, “노인교실 예술활동 프로그램의 참여유형과 효과에 관한 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제9권, 제1호, pp.23-49, 2013.
- [9] 김현준, 변재경, 김현주, 박순희, “우리춤체조가 노인여성의 체력과 보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2집, 제1호, pp.101-115, 2011.
- [10] 이한준, “노인여성의 6개월간 생활무용 참가가 관상동맥질환 위험인자와 Framingham Risk Score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과학회지, 제31권, 제2호, pp.197-210, 2014.
- [11] 정진욱, 김수미, “12주 한국무용프로그램이 당뇨 노인여성의 신체조성, 체력, 혈액성분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연구, 제20권, 제1호, pp.259-280, 2011.
- [12] 홍예주, 박인영, 오덕자, “12주간 한국무용 참여가 여성노인의 신체기능에 미치는 영향”, 무용역사기록학, 제23권, pp.199-221, 2011.
- [13] 김선, 최재희, “생활무용참여 노인의 자기 효능감, 심리적 행복감 및 생활만족도의 관계”, 한국무용과학회지, 제30권, 제1호, pp.175-191, 2013.
- [14] 최재희, 이화석, “생활무용참여 노인의 참여동기, 여가만족, 생활만족, 심리적 행복감의 관계”, 대한무용학회논문집, 제71권, 제1호, pp.151-174, 2013.

[15] 이윤경, 전태유, 박노현, “노인 생활무용 참가에 따른 우울증 및 정서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과학회지, 제22권, pp.1-17, 2010.

[16] 이주연, “창작무용 프로그램이 노인의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 무용역사기록학, 제14권, pp.145-165, 2008.

[17] 조은숙, “창작무용이 노인의 우울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0권, 제3호, pp.119-133, 2009.

[18] 박정희, “여성노인의 한국무용을 통한 사회 참여”, 한국무용학회지, 제6권, 제2호, pp.95-105, 2006.

[19] 최선, “한국무용프로그램이 시설 노인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성 검증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1권, 제1호, pp.129-143, 2010.

[20] 구인자, “노인의 사회무용참여와 사회적 연결망, 사회적 지지 및 건강과의 관계”, 대한무용학회논문집, 제29권, pp.7-20, 2001.

[21] A. Giorgi,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1985.

[22] E. G. Guba and Y. S. Lincoln, *Effective Evalu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1981.

[23] H. S. Wen, H. L. Wu, and H. J. Lee, “Applying a Creative Art Activity in Care: Report on an Experience with a Newly Admitted Resident,” *Journal of Nursing*, Vol.61, No.5, pp.104-110, 2014.

[24] K. Cross, R. Flores, J. Butterfield, M. Blackman, and S. Lee, “The Effect of Passive Listening Versus Active Observation of Music and Dance Performances on Memory Recognition and Mild to Moderate Depression in Cognitively Impaired Older Adults,” *Psychological Reports*, Vol.111, pp.413-423, 2012.

[25] I. Braunerger, “Dance Movement Therapy with the Elderly: An International Internet-Based

Survey Undertaken with Practitioners,” *Body, Movement and Dance in Psychotherapy*, Vol.9, No.3, pp.138-153, 2014.

[26] K. Thornberg, I. Lindquist, and S. Josephsson, “Experiences of Healthy Elderly Participating in a Creative Dance Workshop,” *Advances in Physiotherapy*, Vol.14, pp.71-77, 2012.

[27] 최선, “한국무용프로그램이 시설 노인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성 검증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1권, 제1호, pp.129-143, 2010.

[28] J. L. M. Liddle, L. Parkinson, and D. W. Sibbritt, “Purpose and Pleasure in Late Life: Conceptualising Older Women’s Participation in Art and Craft Activities,” *Journal of Aging Studies*, Vol.27, No.4, pp.330-338, 2013.

저 자 소 개

유 지 영(Ji-Young Yoo)

정회원



- 2008년 2월 : 용인대학교 무용학 박사(무용 교육사회학)
- 2011년 12월 ~ 2013년 8월 : 서울중합예술학교 겸임교수 역임
- 2013년 1월 ~ 현재 : 사)한국춤협회 이사

- 2013년 1월 ~ 현재 : 무용역사기록학회 이사
 - 2013년 1월 ~ 현재 : 한국무용연구학회 편집간사
 - 2013년 3월 ~ 현재 : 한국체육대학교 생활무용학과 강사
 - 2015년 1월 ~ 현재 : 한국춤콘텐츠연구소 전임연구원
- <관심분야> : 무용 교육사회학, 무용콘텐츠, 무용학 연구법